

다니엘의 책 - 번호 백십칠

임박한 일요일 법령의 베일을 벗기다: 도피하라는 표징의 유형론적 분석

Jeff Pippenger

2024-03-05

화이트 자매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서기 66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으로 예표된 '표징'으로 지목하며, 그렇게 하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한 무리를 가리킨다.

영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막이 곧 올라가려 한다. 이 엄숙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주위에서 영혼들이 멸망해 가는데도 자기 안일을 사랑하는 이기심에 매달려 있으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인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부류에 속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 헛되었는가? 그분이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경고를 보내신 것이 헛되었는가? 곧 이 땅에 임할 일들에 관한 영원한 진리의 선언을 믿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 위에 임박해 있음을 믿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안일하고, 나태하고, 무심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보물을 쌓아 둘 때가 아니다.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신의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나라가 교황권의 안식일을 강제하는 법령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큰 도시들을 떠날 때가 될 것이며, 이어서 산간의 외딴 곳에 있는 은둔처로 가기 위하여 작은 도시들까지 떠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5, 464.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은 "산중의 외딴 곳에 있는 은거할 집들로 옮겨 가기 위해, 큰 도시들을 떠나고,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경고 신호(표징)이다. 라오디게아적 상태의 재림교회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 위기가 The Great Controversy에서 말한 그 '표징'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삼 년 반이 시작될 때의 '표징'으로 예표되어 있다. 주후 66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첫 포위 때 성취된 그 '표징'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때 높이 들려질 '기'를 예표한다.

예루살렘의 실제 파괴는 서기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이루어졌고, 티투스의 포위는 먼저 서기 66년 케스티우스의 포위에서 예표되었다.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주신 도피하라는 '표징'은 티투스의 포위가 아니라 시작 때의 케스티우스의 포위였다. 하나는 시작 때의 포위였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의 포위였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그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약속된 표징을 주의 깊게 살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볼 때에는 그 황폐함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성읍에서 떠나라.” 누가복음 21:20, 21. 케스티우스 휘하의 로마인들이 그 도시를 포위한 뒤, 모든 것이 즉각적인 공격에 유리해 보이던 때에 그들은 뜻밖에도 공성전을 포기하고 포위를 해제했다. 포위된 사람들은 성공적인 저항을 단념하고 항복 직전이었는데, 로마 장군은 아무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주관하고 있었다.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표징이 주어졌고, 이제 구주께서 주신 경고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사건들은 유대인도 로마인도 그리스도인들의 탈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졌다. 케스티우스가 퇴각하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출격하여 물러나는 그의 군대를 추격했고, 양측이 그렇게 전투에 몰두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을 떠날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이때에는 그들의 탈출을 가로막으려 했을 법한 적들도 그 지방에서 물러가 있었다. 포위가 이루어지던 때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때였으므로, 온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방해받지 않고 탈출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곧 요단강 건너편 페레아 땅에 있는 펠라 성으로 피신했다. 대쟁투, 30.

서기 66년 케스티우스의 예루살렘 포위는 그 역사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록해 두신 경고의 "표징"을 성취했다. 그러나 서기 70년 티투스의 포위는 도피하라는 어떤 "표징"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 포위전에서는 성 안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고, 그 마지막 포위전은 예루살렘의 파괴로 이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에서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사의 시작에 도망쳤기 때문이다.

케스티우스와 그의 군대를 뒤쫓던 유대 군대는 그들의 후미를 전멸을 위협할 만큼 맹렬하게 덮쳤다. 로마군은 큰 어려움 끝에 간신히 퇴각하는 데 성공했다. 유대인들은 거의 손실 없이 빠져나왔고,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겉보기의 성공은 그들에게 화만 불러왔다. 그것은 로마에 대한 완강한 저항의 정신을 그들에게 불어넣었고, 그로 인해 머지않아 멸망이 예정된 그 도시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통이 닥쳐왔다.

티투스가 포위를 재개했을 때 예루살렘에 닥친 재난은 참혹했다. 도시는 유월절 기간, 성벽 안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모여 있을 때 포위되었다. 대논쟁, 31.

66년의 초막절부터 70년의 유월절까지는 3년 반으로, 예언적으로는 1,260일이다. 66년부터 70년까지 이교 로마는 성소와 군대를 짓밟았는데, 이는 교황 로마가 538년부터 1798년까지 42개월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은 것과 같다.

그러나 성전 바깥뜰은 제외하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2.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둘 다 천이백육십 일(년)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았으며, 이는 현대의 로마가 마지막 때의 영적 예루살렘을 상징적 기간인 천이백육십 일 동안 짓밟을 것임을 가리킨다. 그 상징적 기간은 치명상이 치유될 때, 곧 머지않아 미국에서 일요일 법이 제정될 때 시작될 것이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또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랴? 하더라. 또 큰 말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이 그에게
주어졌고,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도 그에게 주어졌더라. 요한계시록 13:3-5

교황권 박해의 상징적 42개월은 일요일 법령 위기의 '한 시간'이다. 그 '한 시간'은 하나의
'표징'(그 기)으로 시작하여 '표징들'로 끝난다. 일요일 법령 때 그 기의 '표징'은 아직
바벨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른 언덕들 위로 높여진(들어 올려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으로 도피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들릴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오리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 2:2, 3.

일요일 예배를 강제하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도시로부터의 탈출은 서기 66년에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한 일과 서기 538년에 교회가 광야로 피신한 일, 이 둘 모두에 의해
예시되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그 여인을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2:6.

예루살렘의 멸망은 첫 번째 포위부터 마지막 포위까지 3년 반 동안 이어졌지만, 다가올
멸망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첫 번째 포위 3년 반 전과 그 후 3년 반, 총 7년 동안
전해졌다.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분의 경고하신 말씀이 참됨을 경험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2.

징조와 이변이 나타나 재앙과 파멸을 예고했다. 한밤중에 부자연스러운 빛이 성전과
제단 위를 비추었다. 해질 무렵 구름 위에는 전투를 위해 모여드는 병거와 전사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밤에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신비한 소리에 공포에 질렸고,
땅이 흔들렸으며, 수많은 목소리가 '이곳을 떠나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동문은 스무 명이 달라붙어도 겨우 닫을 만큼 무거웠고, 견고한 돌바닥 깊숙이 박힌
거대한 쇠빛장으로 굳게 잠겨 있었는데, 자정에 눈에 보이는 힘도 없이 열렸다.

-Milman, The History of the Jews, book 13.

7년 동안 한 남자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오르내리며 그 도성에 닥칠 화를 선포했다.
그는 밤낮으로 섬뜩한 애가를 외쳤다: '동쪽에서 나는 소리여! 서쪽에서 나는 소리여!
사방 네 바람에서 나는 소리여! 예루살렘과 성전을 거스르는 소리여! 신랑들과
신부들을 거스르는 소리여! 온 백성을 거스르는 소리여!' -Ibid. 이 기이한 인물은
투옥되고 채찍질을 당했으나 그의 입에서는 단 한 마디의 불평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모욕과 학대를 받아도 그는 오직 이렇게 대답했다: '화, 화가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화, 화가 그 주민들에게 있으리라!' 그가 예언했던 포위전에서 살해되기 전까지 그의

경고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The Great Controversy, 29, 30.

서기 70년에 문자적 예루살렘의 최종 파괴에 앞서 '재앙과 파멸'을 지목하는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경고의 '표적들'은 첫 번째 포위 이전의 3년 반 동안과 파괴로 이어진 3년 반 동안 나타났다. 다가올 파괴를 지목하던 복수형의 '표적들'은 피하라고 경고하는 '표적'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곧 끝난다는 선포였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영적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가운데, 도망하라는 경고의 '표징'은 '멸망의 가증한 것', 곧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로 '나타난' 때였다.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자신을 높여,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15.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표적"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은 1,260년 동안 광야로 도피했다.

성직자의 예복으로 위장되어 교회에 도입된 기만과 가증한 것들에 맞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신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사적인 투쟁이 필요했다. 성경은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라는 교리는 이단으로 불렸고, 그 옹호자들은 미움받고 금지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오랜 치열한 투쟁 끝에, 신실한 소수는 배교한 교회가 여전히 거짓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다면 그 교회와의 모든 연합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았다. 자신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오류를 감히 용납하지 않았고, 자녀와 손주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할 본을 보일 엄두도 내지 않았다. 평화와 일치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어떤 양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원칙을 희생하는 대가로 얻는 평화라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여겼다. 만일 진리와 의를 타협해야만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불일치가, 심지어 전쟁이 있더라도 좋다. 위대한 논쟁, 45.

교황권의 박해가 지속된 지 천이백육십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표적들"(복수형)이 있었고, 이교 로마가 문자적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천이백육십일의 끝에 있었던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그 "표적들"은 도피하라는 표적이 아니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알리는 표징들을 주셨고, 더 나아가 그 표징들 가운데 첫 번째가 나타날 때를 정해 주셨다: '그 날들의 환난 후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하늘에서 인자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통하고, 그들이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큰 교황권 박해의 끝무렵에 그리스도께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아직 연하여 잎사귀를 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32, 33, 여백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오심의 징조들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선언하신다. 그분은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대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확실히 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대의 소망, 631, 632.

교황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힌 삼 년 반'이 끝나가던 때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식별하게 하고 밀러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일련의 '징조들'이 있었다. 밀러파의 역사는 마지막 날들에 문자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교황권의 대박해가 끝날 무렵'에 나타난 그 '징조들'은, 이교 로마가 66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을 짓밟던 삼 년 반이 마무리될 때 나타난 '징조들'로 이미 예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두 증인에 근거하여, 현대 로마의 역사 속에서 도피하라는 경고의 징조인 큰 지진의 때에 높이 들려지는 기치의 '징조'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 날들에 현대 로마의 박해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나는 복수의 '징조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혹시라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 그 날이 뜻밖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 그 날은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덧처럼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누가복음 21:34-36).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대체로 교회들은 잠들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아가라'는 부름이 있을 때 자기 등불에 기름이 없음을 알게 되었던 미련한 처녀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미련한 처녀들이 연회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뜻밖의 거절을 받았다. 잔치의 주인이 선언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문밖의 텅 빈 거리에서 칠흑 같은 밤의 어둠 속에 서 있는 채로 남겨졌다. Manuscript Releases, 제15권, 229쪽.